



공급망핵심 기업 유턴으로 국내 공급망 퍼즐 맞추다

- 반도체 첨단패키징 우수 기술보유 기업 (주)네패스 국내복귀기업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6.12(목) 국내복귀기업 선정서 수여를 위해 반도체 패키지 제조기업인 (주)네패스 청주공장을 찾았다. (주)네패스의 투자계획 설명을 들은 후 생산 현장과 투자 예정부지를 살펴보았으며, 유턴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네패스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의 모든 과정을 일괄공급(범펄·패키징부터 테스트까지) 수행하는 ‘종합 후공정 파운드리 전문기업’으로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보유 기업이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 대상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충북 청주공장 유희부지에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 거점 기지화 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첨단·공급망핵심 기업의 유턴을 적극 유치중이다. 이에 (주)네패스의 청주공장 투자는 신규고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수출확대, 공급망 안정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소부장 핵심기업들의 국내복귀는 투자·고용·수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네패스 같은 우수기업의 국내복귀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	책임자	과 장	김동진 (044-203-4090)
		담당자	사무관	허수지 (044-203-4069)

참 고**유턴기업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 '25.6.12.(목) 14:30~15:30

□ 장 소 : 네패스 청주공장(반도체 패키지 제조)

□ 참석자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해외투자과장

(네패스) 이창우 부회장(대표이사), 김태훈 사장(반도체 사업부장)

이현규 전무(재무지원본부장), 이상민 상무(전략기획본부장)

(지자체) 충청북도 투자유치국장 문석구, 투자정책팀장 최윤정

청주시 투자전략팀장 정인숙

(지원기관) ^{산단공} 산단혁신본부장 김병오

^{코트라} 국내복귀지원팀장 임성아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30~14:48	(3')	· 모두 발언	무투실장
	(15')	· 기업 현황 및 사업 소개 - 증설라인 및 기술 CPB 설명	기업
14:48~14:58	(10')	· 기업 투자애로 청취	참석자
15:00~15:05	(5')	· 유턴 선정서 수여	무투실장
15:05~15:20	(15')	· 현장투어	1·2공장 투자에정부지
15:20~15:22	(2')	· 환송식 - 기념촬영	